



통신서비스업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김희재 hoijae.kim@daishin.com

1. 주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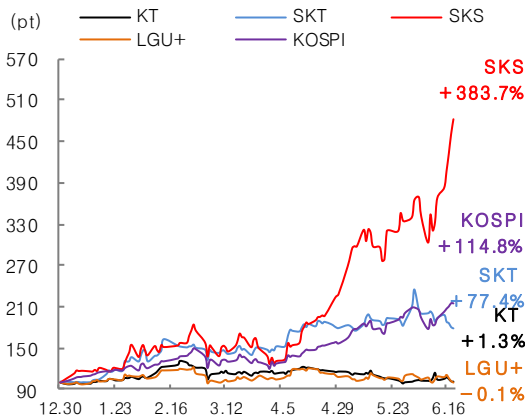
기업	25/12/30	06/12	06/19	연간 상승	수익률	주간 상승	수익률	12MF DPS	배당수익률	주간 그래프
SKT (017670)	53,500	103,000	94,900	▲ 41,400	▲ 77.4%	▼ 8,100	▼ 7.9%	3,320	3.5	
SK스퀘어 (402340)	368,000	1,358,000	1,780,000	▲ 1,412,000	▲ 383.7%	▲ 422,000	▲ 31.1%			
KT (030200)	52,600	54,800	53,300	▲ 700	▲ 1.3%	▼ 1,500	▼ 2.7%	2,500	4.7	
LGU+ (032640)	14,720	15,950	14,710	▼ 10	▼ 0.1%	▼ 1,240	▼ 7.8%	700	4.8	
KOSPI	4,214.2	8,123.6	9,052.4	▲ 4,838.3	▲ 114.8%	▲ 928.8	▲ 11.4%			

주가 Comment

- 주가 코멘트: DC의 본고장 통신, AIDC 수요 증가는 기회
- 통신 주간 -6.2%, KOSPI +11.4%. YTD 통신 +28.6%, 지수 +114.8% 지수가 가보지 않은 영역인 9천선을 돌파하면서 시장의 주도주 쏠림 심화
- 묵묵히 갈 갈을 가던 KT마저도 이번 주는 하락 마감. SKT는 엔트로픽의 한국 포함 일부 해외 이용자의 차단이 부정적으로 작용
- 한편, 엔트로픽의 해외 이용자 차단이 소버린 시를 더욱 부추길 수 밖에 없고, 자국 영토 내에 서버를 구축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AIDC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통신사들의 DC는 그동안 Colocation 등 데이터 저장 용도 위주로 사용되면서 100MW당 3~4천억원 수준의 매출을 창출했으나, GPUaaS 등 AIDC 수요가 증가하면 동일한 용량당 매출이 7배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TSR이 6.1%로 가장 높고, 현재 자사주 2.5천억 취득이 진행 중인 KT가 현시점에서는 가장 투자에 적합하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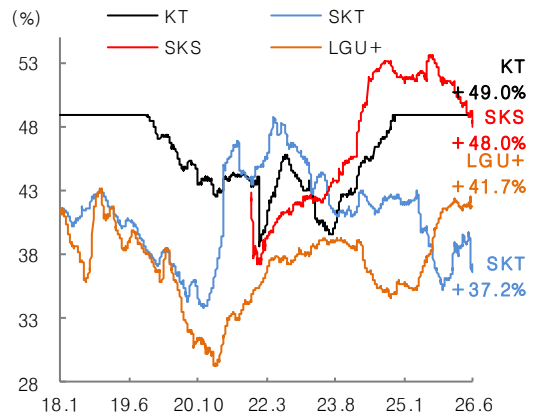
2. 주가 차트

26년 YTD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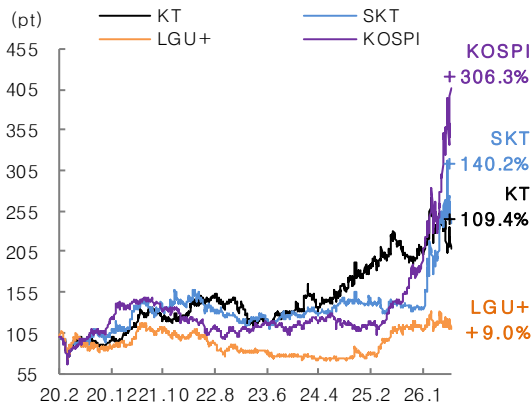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외인 지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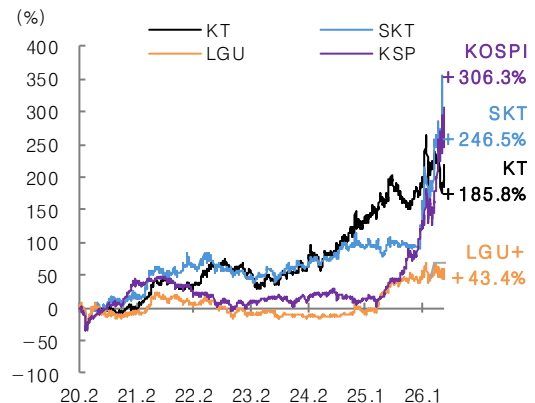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 시점 대비 주가 수익률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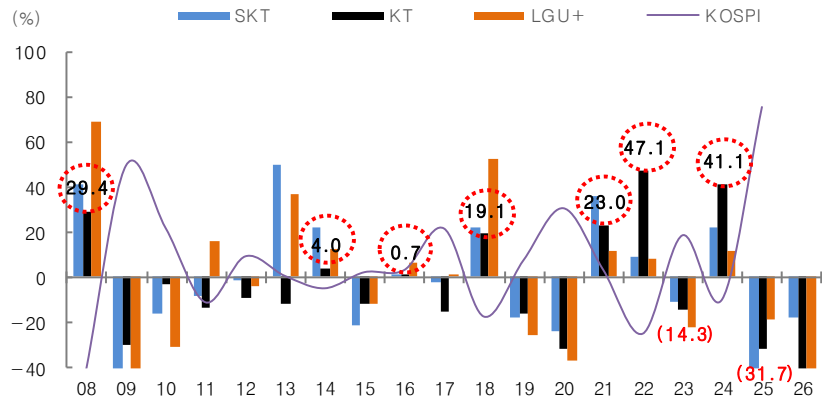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 시점 대비 배당 재투자 수익률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YTD 주가 상승률(KOSPI 대비 상대 수익률).

SKT +77.4%(-17.4%), KT +1.3%(-52.8%), LGU+ -0.1%(-53.5%)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6년초부터 SKT의 급등으로 26.2월 기준 통신업은 KOSPI 대비 아웃퍼폼

	SKT	KT	LGU+	KOSPI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19	(11.7)	(9.4)	(19.5)	7.7	(18.0)	(15.9)	(25.3)
20	0.0	(11.1)	(17.3)	30.8	(23.5)	(32.0)	(36.7)
21	41.0	27.5	15.7	3.6	36.1	23.0	11.7
22	(18.1)	10.5	(18.8)	(24.9)	9.0	47.1	8.2
23	5.7	1.8	(7.4)	18.7	(11.0)	(14.3)	(22.0)
24	10.2	27.5	1.0	(9.6)	21.9	41.1	11.7
25	(3.1)	20.0	42.5	75.6	(44.8)	(31.7)	(18.9)
26	77.4	1.3	(0.1)	114.8	(17.4)	(52.8)	(53.5)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주: 파란색 음영은 통신3사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 주황색 음영은 지수 대비 상대수익률이 (+)이면서 가장 높은 기업

3. 주간 코멘트

SKT AX 2.0, KT AI에이전트 하반기 도입, 한일 전파정책 공조, 5G 가입자 31억명, LGU+ 노란봉투법 적용

<p>SKT</p> <p>SKT AX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SKT가 전사 AI 전환 전략을 기존 업무 효율화 중심 단계에서 조직 운영과 사업 혁신 단계로 확장하는 AX 2.0 공개. 구성원 업무 전반 재설계와 생산성 향상을 겨냥한 차세대 전환 체계 2. SKT는 이천포럼에서 새로운 AX 방향 제시 후 AI를 단순 지원 도구가 아닌 공동 업무 주체로 규정하는 변화 강조. 업무 수행 과정에 참여하는 디지털 동료 개념의 AI 에이전트 운영 모델 3. AI 에이전트에 사번과 조직, 직무, 권한을 부여하고 입사부터 퇴사까지 사람과 유사한 관리 절차 적용 계획. 데이터 접근과 보안 통제 기준을 포함한 인간·AI 협업 거버넌스 구축 4. 기존 업무 관행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AX 샌드박스 제도 도입과 일부 조직 대상 시범 운영 경험 축적. 복수 역할 수행과 기획 기간 단축, 의사결정 속도 향상 등 생산성 개선 5. 에이닷 비즈와 플라리스, 플레이그라운드 등 사내 AI 플랫폼 통합 추진과 업무 시스템 연계 확대 방침 발표. 안전성과 활용성을 함께 높이는 보안 체계 고도화 및 AI 활용 환경 정비 계획 6. 전사 AX 확산을 지원할 AX 카탈리스트 선정과 실무 중심 교육 체계 구축 등 실행 기반 마련 작업. 성공 사례와 도전 경험을 AX 라이브러리로 축적해 조직 자산으로 활용하는 확산 전략
-------------------------------------	--

<p>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는 Full Stack AI를 지향하며 AI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도 구축 중 ■ 내부에서 AI를 활용해서 노하우를 쌓는 것도 AI 시대에 맞는 BM을 구축하는데 좋은 방법
-------------------	---

<p>KT</p> <p>KT AI에이전트 하반기 도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KT가 생성형 AI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틱 AI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 소비자 서비스와 기업 시장 전반에 AI 에이전트를 적용하는 AX 전략 공개 2. 소비자 영역에서는 통신 서비스 마케팅과 지니TV, 소상공인 플랫폼 '사장이지' 중심의 초개인화 AI 에이전트를 하반기에 도입 계획. 이용 이력과 대화 맥락을 학습해 요금제와 콘텐츠를 맞춤 추천하는 서비스 3. 기업 시장에서는 법률과 특허, 네트워크 운영 등 전문 영역 데이터를 활용한 버티컬 AI 에이전트 개발 추진. 산업별 특화 지식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X 사업 확대 방향 4. 사용자를 대신해 일정 조율과 예약,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형 AI 에이전트 연구도 병행. 여러 AI 에이전트가 상호 협력하며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자율 실행형 환경 구축 목표 5. 기업 내부 업무 지원을 위한 임플로이 에이전트 개발도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 메신저와 업무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 부재 대응과 질의 응답, 일정 조정 등을 지원하는 업무 자동화 체계 6. 에이전틱 AI 핵심 기술로 자체 검색강생성 기술인 K-RAG 공개 및 활용 확대 계획. 답변 생성 이전 정보 검색과 검증 과정을 거쳐 환각 현상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이는 AI 품질 고도화 전략
--	---

<p>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산업에서 통신의 기회는, 인프라 영역의 DC와 서비스 영역의 Agentic AI 및 Physical AI ■ 소버린 AI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중간 단계인 LLM 및 생성형 AI를 독자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DC를 캐쉬카우로 해서 이제 막 시작 단계인 영역의 Agentic AI와 Physical AI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

<p>산업</p> <p>한일 전파정책 공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과 일본이 저궤도 위성통신과 6G 시대를 대비한 차세대 전파 정책 협력 확대에 합의하며 정책 공조. 2027년 세계전파통신회의를 앞두고 국제 주파수 규칙과 미래 전파 질서 논의 강화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일본 총무성은 서울에서 제7차 한일 전파국장회의 개최. 양국 정부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정례 협의 3. 세계전파통신회의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4년마다 개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국제 주파수 분배와 이용 규정을 결정해 각국 통신 산업과 위성 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 4. 핵심 의제는 6G 이동통신과 저궤도 위성통신 중심의 미래 주파수 정책. 차세대 통신 서비스 확산과 위성통신 수요 증가에 따른 주파수 확보 경쟁 심화 배경 5. 스타링크 등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자의 시장 확대 속에서 국제 규범 중요성 부각. 인접국 간 간섭 관리와 주파수 조정 필요성 확대에 따른 협력 체계 강화 필요성 존재 6. 양국은 국제 주파수 분배와 전파 관리 현안 관련 정보 교류 확대 방침 공유. 미래 전파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며 WRC-27 논의 과정에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 협력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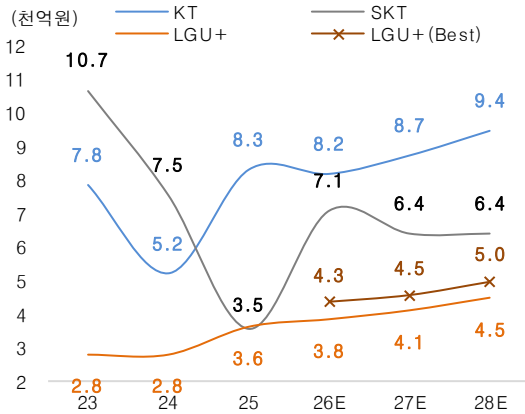
<p>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G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했고, 30년 경에는 표준 수립 및 상용화가 이루어질 전망 ■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업 필요
-------------------	---

<p>산업</p> <p>5G 가입자 31억명 돌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 세계 5G 가입 건수가 올해 1분기 기준 31억건 돌파, 본격 대중화 단계 진입. 분기 동안 신규 가입 1.6억건 증가와 함께 2031년 말 64억건 규모 전망 2. 현재 글로벌 통신 시장은 약 390개 통신사업자가 5G 상용 서비스를 제공. 이 가운데 90개 이상 사업자가 5G 단독모드 기반 네트워크를 도입하며 차세대 인프라 확산 3. 전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가운데 5G 비중이 2025년 말 기준 48% 수준. 서유럽과 북미, 동북아, 걸프협력회의 국가 중심의 5G 보급률 90% 근접 전망 4. 네트워크 자원을 서비스별로 분리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상용화도 확대 흐름. 관련 상용 서비스가 지난해 65건에서 84건으로 증가하며 품질 보장형 서비스 시장 확대 5. 고정무선접속 시장에서도 5G 활용이 빠르게 증가. 5G 기반 FWA 사업자 비중이 71%까지 상승하고 속도 차등형 요금제 도입 국가도 확대 추세 6. 이용 형태 변화도 뚜렷한 데이터 트래픽 구조 전환 신호. 분석 대상 통신사업자 대부분에서 업링크 증가율이 다운링크를 상회하며 사용자 생성 콘텐츠와 클라우드 활용 확대 확인
--	--

<p>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가 통신의 가장 기본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가입자/기기 확산에 그치지 말고 부가 서비스를 창출해야 할 것 ■ AI 산업과 연계했을 때, Agentic AI와 Physical AI에서 5G N/W을 활용한 BM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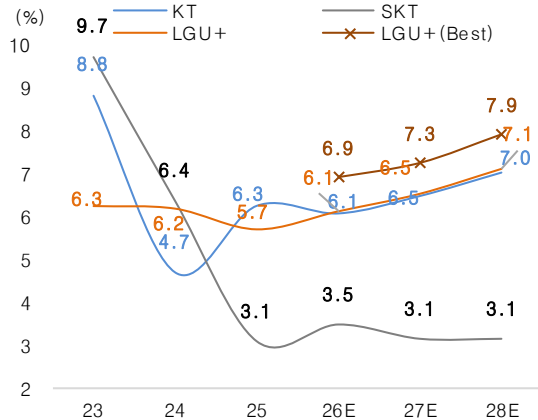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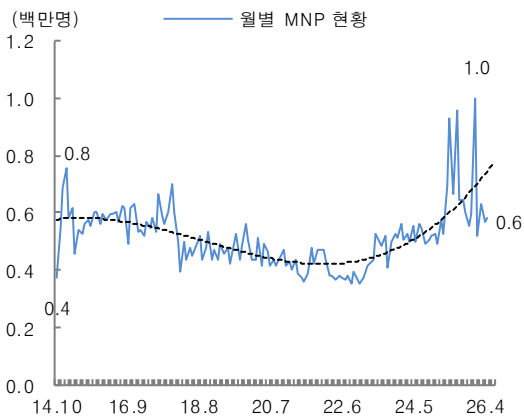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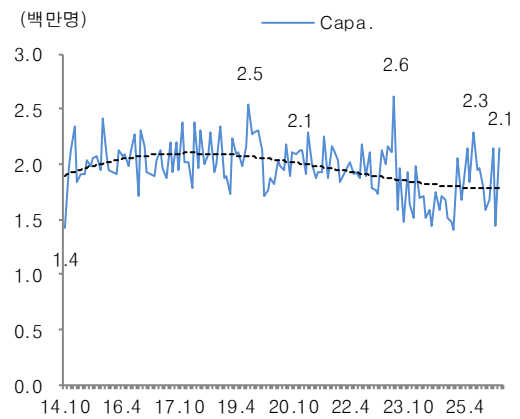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번호이동(26.5월) 584천명, +18천명 mom. 25년 평균 656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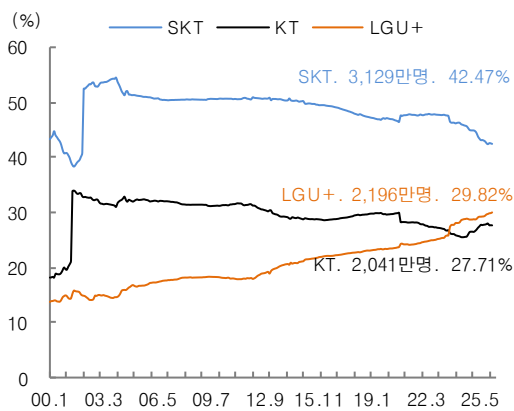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apa.(신규 + 번이 + 기변) 214만명(26.3월). 24년 평균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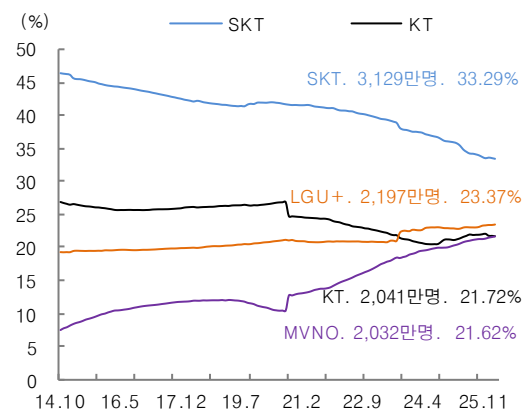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6.3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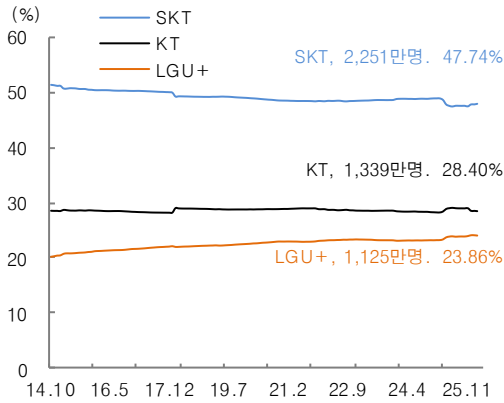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6.3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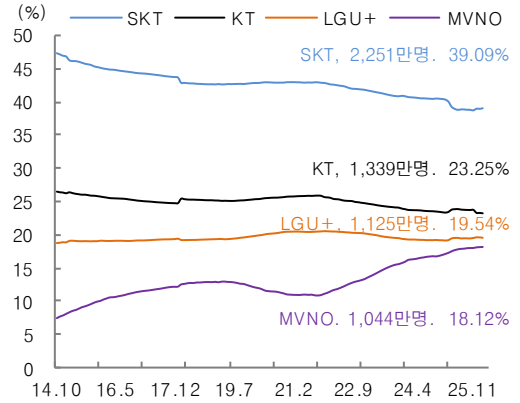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6.3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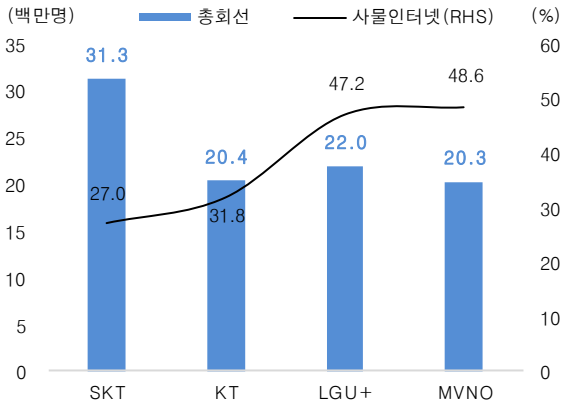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6.3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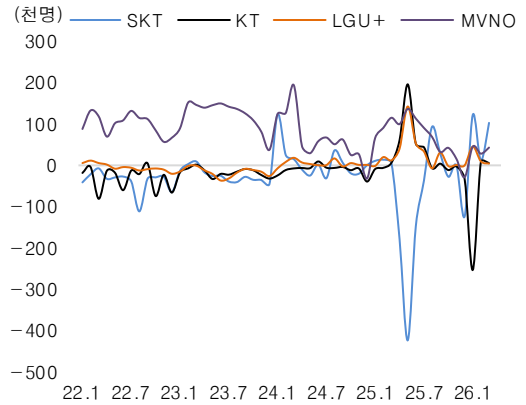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vs. 사물인터넷 비중(26.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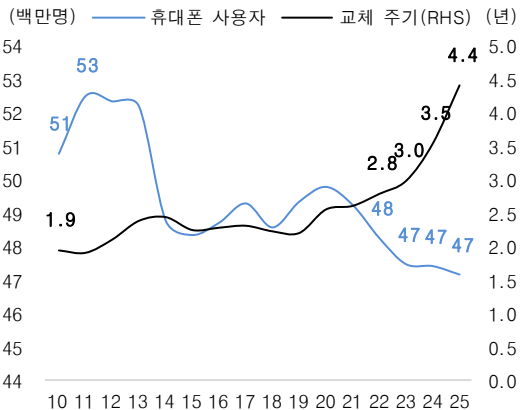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순증(26.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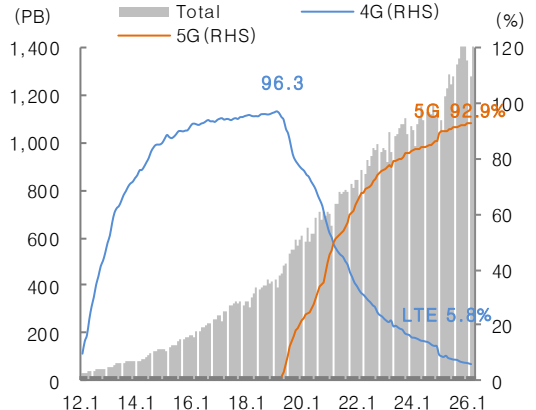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교체주기 4.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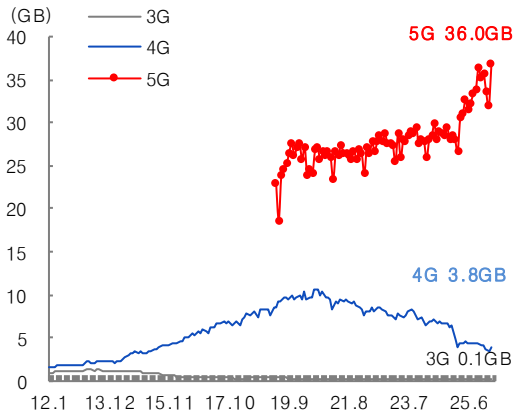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비중 92.9%(26.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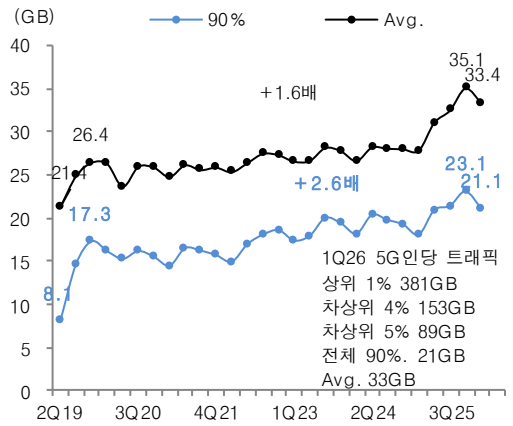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인당 월평균 5G 트래픽 36.0GB(26.3월), +4.0GB m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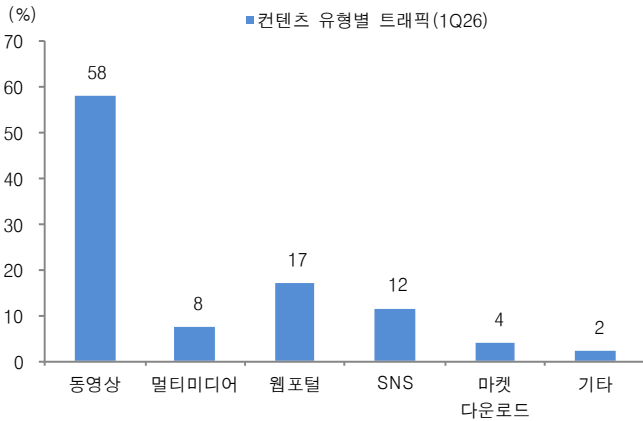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추이(1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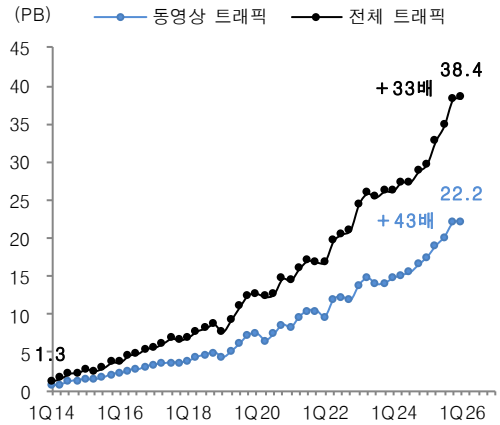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콘텐츠 유형별 트래픽(1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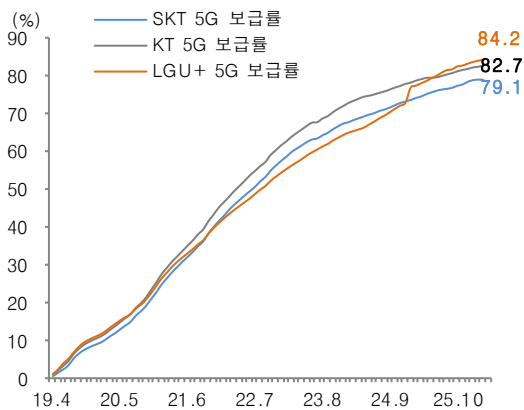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동영상 트래픽 vs. 전체 트래픽(1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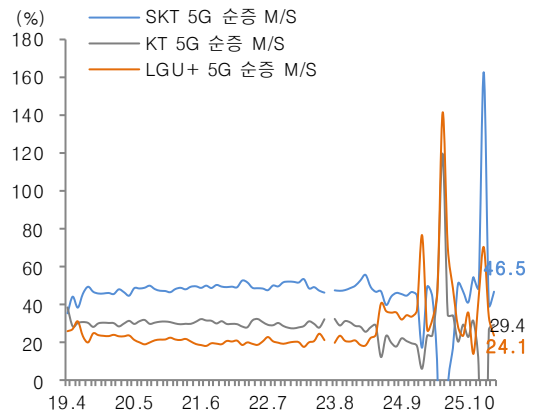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대비 5G 보급률 81.3%(26.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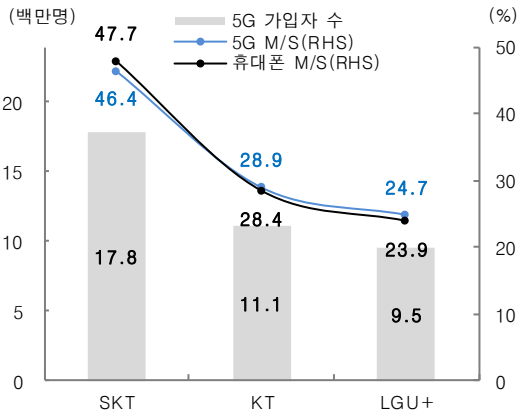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순증 점유율(26.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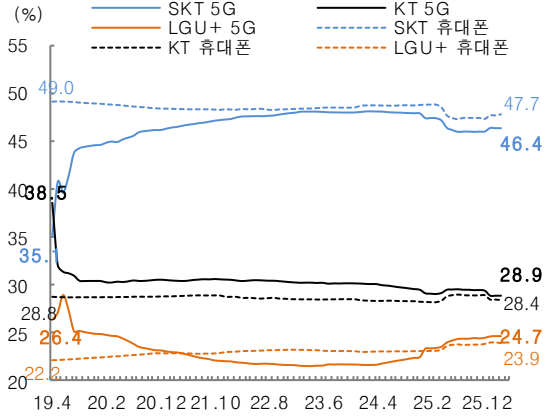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6.3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6.3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김희재)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